

2022년 3월 시엠립 선교 편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조국과 고향에 계신 선교 동역자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지난 3년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을 다녀온 이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역의 틀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곳 캄보디아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정상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 백신패스도 많이 완화시키고, 곧 주변국들과 코로나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국경을 오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천과 프놈펜으로는 직항이 계속 있긴 했지만, 저희가 있는 시엠립공항으로는 직항이 아직 오가지 못하고 있으나, 그것도 곧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루 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 되어서, 과거와 같이 비전트립과 선교여행을 오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2022년 1/4분기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정들로 채워졌습니다.まずは 한 동안 대면으로 열리지 못했던 현지인 어린이 청소년 예배사역이 망고슌지역아동센터를 개원하면서 그곳으로 장소를 옮겨 주중사역과 함께 주일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역의 교민자녀, MK선교사자녀, 다문화 가정자녀들을 섬기는 시엠립한글학교 교장으로 선임이 되어 지역복음화와 세계선교 뿐 아니라 다음세대지도자양육이라는 교회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사역은 두 가지 이유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첫째는, 한인교회 아동부예배에 다수 출석하게 되었던 현지인 아이들을 제대로 현지어린이예배로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인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현지인어린이사역이 교회부지 임대주인의 클레임으로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일사역 뿐 아니라 주중사역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라는 형식으로 합법적인 기관을 세워서 교육사역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지인 어린이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 또 이 모든 것에 대한 사역재원을 안동교회에서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지역 한글학교 교장 선임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여러모로 아직 선교지에서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국어전공이라는 것과 한인교회 담당사역인 것, 그리고 지역대학 한국어과 강사 및 한글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것이 중요한 이력이 되어서, 주캄대한민국대사관 시엠립분관장인 총영사로부터 선임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막중한 역할이라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일은 현지에 있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섬기는 일일 뿐 아니라 선교사자녀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까지 아울러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고민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한인교회사역, 현지인어린이청소년사역, 한글학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또한 이 일들을 위해 단기봉사자나 장기봉사자로 지원해 주시면 선교현지에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와 어린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2022.3.31. (목) 저녁
인도차이나 소망의 땅 캄보디아에서,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임창무 정윤영 하은 하람 하민 선교사가족 올림

<선교 기도제목>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16)

1. 순종의 훈련(묵상, 성경통독)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선교사역 되기를
2.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며 나와 같은 한 명의 목사, 선교사가 양육되도록
3. 선교4년차로서 저희 부부와 자녀들(하은, 하람, 하민)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언어의 진보를 주소서
4. 후원교회(안동교회 외)와 시엠립한인장로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지역복음화와 세계선교, 다음세대 지도자 양육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 되도록
5. 어린이 교육사역 및 돌봄사역이 잘 준비, 진행되도록..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한글학교, MK스쿨, 다문화가정예배 등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것(동역자, 재정)이 준비되도록
6. 자녀들의 모국어 교육과 기타 언어교육, 배움이 잘 되어 가도록
7. 교회부지 임대주인과의 원만한 관계와 재계약문제 잘 해결되어 한인예배 지속 되도록
8. 동역자들을 보내주소서. 현지인사역자, 단기선교사와 견습선교사, 교사(현지인, 한인) 등
9. 남편 발목인대손상 잘 낫고, 막내 하민이 올해 연말에 한국 진료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10. 추후에 NGO비자가 잘 연결되고, 좋은 체류여건이 확보될 수 있기를

<교회소개>

현재 섬기고 있는 **시엠립한인장로교회**는 캄보디아 시엠립 시내에 소재한 한인장로교회로서 지역복음화, 세계선교, 다음세대지도자양육을 주된 목표로 하여 한국교민들과 선교사네트워크를 통해 캄보디아 2세대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 표 어 :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엡 4:3, 요17:21)
- 목 표 : 1. 은혜가 충만한 예배 2. 진리로 배우는 교육 3. 사랑이 넘치는 교제
4. 순종으로 행하는 선교 5. 기쁨으로 섬기는 봉사

<현재 및 향후사역>

- 1) 한인예배 2) 현지인어린이예배 3) 지역아동센터(공부방) 4) 한글학교 5) 성경통독
- 6) NGO사역 7) 신학선교세미나 8) 어린이도서관 9) 다문화예배 및 모자시절

<연락처>

- 1) 한국: 임창무 010-9613-1251
- 2) e-mail&SNS: lcm4247@hanmail.net / 카톡ID lcm4247 (임창무)
카톡채널 https://pf.kakao.com/_pxawtj (시엠립한인장로교회)
- 3) 전화번호: (한국) 070-7574-3240 / (855) 087-751-024. (855) 077-709-430
- 4) 주소: No. 212 Sala Kanseng Village, Svay dangkum Commune, Siem Reap, Cambodia
- 5) 우체국사서함: P.O.Box 93149 Siem Reap Angkor Cambodia

*카카오채널로 선교편지와 선교지소식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시엠립한인장로교회**'를 친구로 추가해 주세요.

예) 카카오톡>검색>'시엠립한인장로교회' 검색>채널추가>소식받기 설정

